

안면도가 육지였다고?(자석그림 교보재)

개발자	강경래(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태안해안국립공원지역인 안면도가 원래는 육지였음을 알리는 역사적 이야기를 통해 우리고장의 역사를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	
활용대상	유아 ~ 중·고등, 성인
활용시기	사계절
준비물	교보재
소요시간	40분
제작비용	약 5,000원(자석, 코팅지 등)





안면도의 역사에 대한 설명



교보재 부착 후 안내간판의 모습

운영방법

1. 프로그램 운영 전 ‘태안의 안면도가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로 큰 섬인가?’ 라는 질문으로 탐방객을 집중시킨다.
2. 안면도는 원래는 섬이 아니었다는 점을 알린다.
3. 해변길 안내간판과 교보재를 이용하여 안면도의 역사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4. 안면곶과 안면도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향후방향

– 태안의 지역유래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 스토리텔링의 자료로 활용한다.

참고내용

굴포운하

태안군 태안읍에 접해 있는 천수만(淺水灣)과 서산시 팔봉면과 접해 있는 가로림만(加露林灣)을 연결하는 운하 유적이다. 1134년(인종 12)년 착공하여 1669년(현종 10)까지 530여 년간 계속 되었지만 결국 전체 7km중 4km만 개착되고 나머지는 완공하지 못했다.

삼남지방(三南地方)의 세곡(稅穀)을 서울로 운송할 때에는 반드시 태안반도의 안흥량을 통과해야만 했는데, 안흥량은 수로(水路)가 매우 험난하고 암초(暗礁)가 많아서 사고를 방지하고 서울까지의 항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굴포운하 건설이 계획되었다.

현재 굴포운하의 유적지로 남아 있는 지역은 평균적으로 운하 밑바닥의 넓이는 약 19m이고 상층부의 넓이는 52m이며, 높이는 제일 낮은 곳이 3m이고 제일 높은 곳은 50m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굴포운하 [掘浦運河] (두산백과)

판목운하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와 남면 신온리와의 접경을 인공적으로 절단해 놓은 곳을 말한다. 안면도(安眠島)는 원래 육지와 붙어 있어 섬(島)이 아닌 안면곶(安眠串)으로 불려졌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안면읍은 육지로 연결되어 있던 반도였으나 인조(1623~1649) 때 삼남지역의 세곡선(稅穀船)의 왕래를 돕기 위해 인공적으로 좁은 목을 절단하였다. 이로 인해 두 지역의 가장자리의 판목이 생기고 현재의 안면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안면도판목 [安眠島—] (두산백과)

주의사항

– 자칫 지루할 수 있지만 우리의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한다.